

한국산 타이어, 뉴질랜드서 인기

뉴질랜드 타이어 시장은 세계গুল지의 브랜드 제품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산은 이미지 있는 브랜드로 성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에는 브리지스톤과 피어스톤 및 던롭이 현지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수입되는 새 타이어는 99년 기준 총 NZ\$ 1억 2천만 정도이며 일본, 호주, 한국, 미국이 주요 공급국이다.

일본산이 새 타이어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3%, 호주가 14.5%, 이어서 한국이 11.9%로 3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지시장 수출은 97년 이후 거의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99년 수출실적은 NZ\$ 1,400만을 기록했다.

한편 뉴질랜드의 재생 및 중고 타이어 수입은 99년기준 NZ\$ 1,150만으로 이중 일본산이 69.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어서 미국, 독일, 한국순인데 같은 해 우리나라는 NZ\$ 40만을 수출했다.

뉴질랜드내에는 99년 현재 승용차 183만대를 포함한 267만대의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재고 및 중고 타이어보다 새 타이어를 선호하는 수요패턴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호 및 한국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는 현지 딜러들에 의하면 한국산 타이어는 가격 및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지시장이 너무나 협소하고 세계 굴지의 브랜드가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저가격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시장진출 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산 타이어는 현지 시장에서 잘 마케팅되어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이미지있는 브랜드로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뉴질랜드 달러화가 폭락해 3년전 NZ\$당 0.6~0.7달러에 달하던 가치가 현재는 0.43달러 정도에 불과해 제품 수입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러시아 타이어 공업, 활발한 회복세

러시아 통계 위원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 러시아내 종류별 타이어 생산은, 트럭용 타이어 생산이 18.3% 증가한 469만개, 농업기계용 타이어는 29.0% 증가한 56.9만개, 오토바이용 타이어는 10.4% 증가한 57.2만개에 달한 반면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은 1.7% 감소한 826만개에 달했다. 타이어 제조업체 중 최대의 생산증가를 기록한 업체는 옴스크 소재 Omskshina로 62.6% 증가한 152만개를 생산했다.

업체별 세부 생산실적을 보면, Moscow Tire Plant는 26.5% 증가한 107만개, Yaroslavl Tire Plant는 17.5% 증가한 308만개, Kirov Tire Plant는 3.3% 증가한 90.9만개, Voronezhshina는 12.2% 감소한 63.7만개, Nizhnekamskshina는 7.5% 감소한 385만개, Voltire(볼고그라드 소재)는 10.3% 감소한 105만개, Barnaul Tire Plant는 15.5% 증가한 88만개, Ural Tire Plant(스베르드로브스크 소재)는 30.5% 증가한 37.7만개 Krasnoyarsk Tire Plant는 33.1% 감소한 13.5만개에 달했다.

獨 타이어 시장, 올해도 판매호조

- 자동차 구매 늘자 부품 수요 동반상승 -
 '99년 독일에서는 약 5,018만개의 타이어가 판매되어 처음으로 타이어 판매 5천만개를 돌파했으며 이는 '98년의 4,834만대에 비해 3.8% 증가한 것이다. 2000년에는 전년보다 약 3.0% 증가한 5,171만개가 판매될 전망이다.

'99년 판매된 약 5,018만개의 타이어 중 승용차용은 4,292만개로 전체의 85.5%였으며 나머지 726만개의 타이어는 상용차 및 오토바이용 타이어였다. 또한 승용차용 4,292만개 중 4,020만개(93.7%)는 신차용이고 나머지 272만개는 대체용이 차지했다.

승용차용 타이어 4,292만개중 겨울용 타이어가 1,933만개를 차지해 전체 승용차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8%나 되었으며 이는 '98년의 42.4%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99년 독일에서 타이어 판매가 증가한 요인으로 자동차산업 경기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부품인 타이어도 동반 상승한 것 외에 독일인들의 높은 안전욕구가 겨울용 타이어 구입을 증가시킨 점을 들 수 있다.

2000년에도 지속적인 겨울용 타이어 판매호조, 완만한 자동차산업 경기상승을 배경으로 ‘99년 보다 약 3.0% 증가한 선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8개의 업체가 승용차 및 스포츠카용 약 5천만개를 생산하고 있으며 승용차용은 연간 약 900만개를 생산하고 있다.

독일은 승용차용 타이어를 연간 약 4,700만개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일본, 한국, 이탈리아, 영국 등이다. ‘99년 이 제품 수입액 기준 한국은 독일의 3대 수입국이며 총수입의 6.4%를 차지했다. 수입관세율은 4.8%이며 독일 내 소비를 위해서는 16%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용차용 타이어는 99년중 약 494만개, DM 96만8천을 수입했으며 주요 수입국은 역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일본, 한국이다. 이 제품의 수입관세율 역시 4.8%이다.

2000년 6월 현재 타이어 전문소매상은 1,977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전문소매상과 자동차부품상, 딜러를 합한 3,500여개처에서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소매상간에도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경쟁관계는 결국 가격인하 압박을 초래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도 시작단계에 있어 향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승용차용 수입동향
단위:DM백만

국 별	1997	1998	1999
프랑스	846	838	782
일 본	227	276	333
한 국	103	113	169
스페인	191	182	216
이탈리아	189	195	205
영 국	198	215	184
화 란	226	178	202
폴란드	20	29	37
포르투갈	44	50	36
총 계	2,463	2,536	2,640

자료 : 독일연방통계청 수출입통계

베네수엘라에도 화이어스톤 타이어에 대한 항의거세

-타이어 셰이프 가드 조사에도 영향 미칠 듯-
미국 FORD EXPLORER 자동차에 장착한 화이어스톤 타이어 결함 사건과 관련, 베네수엘라에서도 이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소비자 보호원은 FORD EXPLORER 자동차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베네수엘라에서만 62건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이중 1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보호원은 포드사가 엑스플로러 자동차의 서스펜션에 문제가 있고, 타이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으면서도 이를 숨겨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화이어스톤사는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 화이어스톤사에서 제조된 것으로, 베네수엘라 생산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소비자 보호원은 포드 엑스플로러가 베네수엘라에서도 조립되었으며, 베네수엘라 조립차는 베네수엘라 생산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조립 차량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베네수엘라 제조 타이어에도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베네수엘라 포드사도 베네수엘라 화이어스톤이 생산하는 타이어의 결함율은 미국 화이어스톤사의 결함율보다 1,000배나 높다고 밝히고 15인치 규격인 경우 불량률이 무려 14%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화이어스톤사에 떠 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화이어스톤사는 타이어 결함을 인정하고, 9월 6일부터 62,000개에 달하는 WILDERNESS AT P255/70R-16 모델과 WILDERNESS AT P235/75R-15 모델을 교체해주겠다면서 전일간지에 RECALL 공고를 냈다. 소비자 보호원은 이와 별도로 현재까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포드와 화이어스톤사가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양회사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한 셰이프가드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현지 생산 타이어에 대한 품질 문제가 대두되고, 소비자들의 화이어스톤 구매가 급감함에 따라 동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OTRA〉